

**담당 : 홍보팀 송다혜 사원ㅣ Office : 02)560-4448 ㅣ Mobile : 010-7680-3103 ㅣ E-mail : media@klpga.org**

**배포 일시 : 2025년 4월 12일(토) 16:20ㅣ 보도 일시 : 2025년 4월 12일(토) 16:20**

**‘iM금융오픈 2025’ 3R 주요 선수(박주영, 방신실, 고지우) 코멘트**

**◈ 대회개요**

|  |  |  |
| --- | --- | --- |
| 1 | 대 회 명 | iM금융오픈 2025 |
| 2 | 기 간 | 2025년 4월 10일(목) ~ 4월 13일(일) |
| 3 | 장 소 | 골프존카운티 선산 [아웃(OUT) / 인(IN)코스] |
| 4 | 주 최 | iM금융그룹 |
| 5 | 주 관 | KLPGA(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) |
| 6 | 총 상 금 | 10억 원 (우승상금 1억 8천만 원) |
| 7 | 코스길이 | 파72 / 6,683야드 |
| 8 | 참가인원 | 120명 |
| 9 | 주요  출전선수 | 이예원, 박보겸, 박지영, 홍정민, 고지우, 안송이, 이가영, 박현경, 마다솜  배소현, 황유민, 방신실, 정지효, 조혜지2, 조이안 등 |
| 10 | 중계방송 | SBS골프, 네이버, 다음카카오, U+모바일tv |
| 11 | 방송일정  (생중계) | [1라운드] 11시 ~ 17시  [2라운드] 11시 ~ 17시  [3라운드] 10시 ~ 16시  [최종라운드] 10시 ~ 16시 |

**◈ 박주영 3라운드 중간합계 12언더파 204타(65-69-70) \*공동 선두**

[상세 프로필]

<https://klpga.co.kr/web/profile/mainRecord?playerCode=6781>

**오늘 경기는 어떻게 흘러갔는지, 전반적인 소감은?**  
오늘도 샷이 잘 안 돼서 고생을 많이 했다. 타이밍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 수많은 생각을 하면서 쳤다. 후반에 약간 잡히는 느낌이 들긴 했지만, 지금 당장 연습장 가서 다시 점검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.

**오늘 가장 고비였던 순간은 어디였는지?**

2번 홀 파3홀부터 흔들렸다. 뒤땅을 크게 한 번 치고 나니까 '이게 뭐지'라는 생각이 계속 남아서 흐름을 잡는 데 오래 걸렸다. 후반엔 조금씩 감이 돌아오긴 했다.

**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 가능성도 있는데?**  
그런 건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. 지금 내 머릿속엔 당장 눈 앞에 있는 공 하나 치는 데만 집중하고 있다.

**오늘 밤에 비 예보가 있는데, 코스가 부드러워지면 플레이에 어떤 영향을 줄 것 같은지?**  
크게 유리할 거 같진 않다. 장타자랑 같은 조에 해보니 확실히 볼의 높이와 스핀 양은 다르다는 걸 느꼈다. 나는 노련미로 경기를 풀어나가겠다.

**내일 최종 라운드 각오?**  
내일도 모든 힘을 다 짜내서 최선을 다하겠다.

**◈ 방신실 3라운드 중간합계 12언더파 204타(68-66-70) \*공동 선두**

[상세 프로필]

<https://klpga.co.kr/web/profile/mainRecord?playerCode=10095>

**오늘 경기 소감?**전반에 흐름이 굉장히 좋았다. 4언더로 잘 마무리하고 후반으로 넘어갔는데, 후반 들어 핀 포지션이 까다롭고 집중력이 떨어지면서 두 타를 잃은 게 아쉽다.

**후반으로 갈수록 퍼트 감이 흔들리는 모습도 보였는데, 본인은 어떻게 느꼈는지?**집중력이 떨어지면서 쇼트 퍼트에서 아쉬움이 남는다. 마지막 홀에서도 퍼트가 흔들렸고, 내일은 그런 부분을 빨리 보완해야 할 것 같다.

**바람은 크게 영향을 주지 않았는지?**예상과 달리 바람이 거의 없어서 경기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았다.

**전반과 후반의 차이가 컸는데, 그 흐름이 바뀌게 된 결정적인 순간이 있었는지?**11번 홀이다. 세컨드 샷을 약 5미터 거리로 붙였는데, 내리막 퍼트에서 욕심이 들어가면서 3퍼트를 했다. 실수로 인해 흐름이 깨진 거 같다.

**내일 최종 라운드는 어떤 각오로 임할 생각인지?**선수 간 타수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선두라는 마음은 내려놓고, 다시 첫날처럼 초심으로 돌아가서 한 타 한 타 집중할 생각이다. 최대한 많은 타수를 줄이는 걸 목표로 하겠다.

**우승을 하려면 독한 마음가짐도 필요할 것 같은데, 스스로 그런 마인드를 가진 선수라고 생각하는지?**항상 독한 마음으로 경기에 임하고 있다.

**◈ 고지우 3라운드 중간합계 11언더파 205타(68-73-64) \*공동 3위, 코스레코드 경신**

[상세 프로필]

<https://klpga.co.kr/web/profile/mainRecord?playerCode=10112>

**경기 소감?**   
시즌 시작하고 샷을 할 때 계속 힘이 들어가서 샷이 잘 안됐다. 오늘은 안 되는 걸 받아들이고 마음을 비우고 치니까 오히려 잘 풀려서 찬스가 많이 났고, 샷도 만족스럽다.

**코스레코드를 경신했다. 소감은?**

전혀 몰랐다. 마지막 홀에서 캐디가 “잘 치면 선물 있다.”고 해서 무슨 말인가 했는데, 끝나고 나서야 코스 레코드를 경신했다는 걸 알았다.

**지금까지의 개인 베스트 스코어는 몇 타인지?**  
8언더파 64타가 라이프 베스트다. 오늘 17번 홀에서 보기 안 했으면 개인 베스트를 경신하는 거였는데, 아쉽다.

**오늘 특히 잘된 것?**

오늘은 아침부터 '공격적으로 폭격하겠다.'는 생각으로 나왔다. 아침부터 느낌이 좋았고, 그게 플레이에도 잘 이어졌다. 샷이든, 퍼트든 완벽하게 잘 맞았다고 생각한 게 10개 정도 있었다.

**이번 시즌 전지훈련이 경기력에 도움이 됐다고 느끼는지?**  
도움이 확실히 됐다. 살면서 가장 열심히 했다. 체력, 거리, 아이언, 쇼트 게임까지 빠짐없이 준비했다.

**올 시즌 목표는?**  
목표는 다승왕이다. 그걸 바라보고 올 시즌을 준비했다.

**내일 경기를 위한 전략이 있다면 어떤 건지?**  
평소에는 핀만 보고 치는 습관이 있는데 오늘은 그린 온만 시키자고 마음을 비우고 플레이한 게 찬스가 더 잘 왔었다. 내일도 그 느낌을 이어가겠다.

**내일 우승 경쟁이 가능한 상황인데 어떤 마음가짐인지?**  
이렇게 다시 우승 경쟁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하고 재밌게 치겠다. 우승 경쟁에 도전하는 이 분위기가 아직도 어색하고, 긴장되고, 또다시 첫 우승에 도전하는 기분이다.